



2022 년 9 월 토론토 강림교회

속회공과

구원은 사랑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1-10)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 90 장, 구 98 장)
-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9 월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성도의 하나 됨'입니다.

(1 주 '구원은 사랑의 선물이다', 2 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 주 '동역자를 위한 애가', 4 주 '하나 된 이스라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 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1-7 절).

1)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1 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죄와 허물은 서로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를 표현한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 자연 상태의 인간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죽은 시체는 무엇을 감각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먼저 일하시지 않고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시체였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이처럼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들이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엡 2:8).

2)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 3 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공중이란 땅과 하늘 사이의 공간이다. 성경에서 땅은 사람의 처소,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로 묘사된다. 마귀의 공중 권세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차단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훼방하는 형태로 자행되는 거짓 권세다. 자연적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이 공중 권세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통치와는 관계가 없는 죄의 삶, 곧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다. 믿음이란 공중 권세에 복종하는 삶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3)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절)?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4 절). 또한 그 사랑의 크심과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온 세상과 온 세대에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만민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구원의 은혜를 자신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누리도록 섬겨야 한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나눔 1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의 풍조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돌이킨 이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경계해야 할 세상의 풍조나 육체의 욕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022 년 9 월 토론토 강림교회

2.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8-10 절).

1) 구원은 누구에게서 받은 선물입니까(8 절)?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

구원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로 거저 받는 선물이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에 구원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다(1 절). 시체가 뭔가 행동을 하려면 먼저 살아나야 한다. 아담은 자신에게 생령이 부어져 생령으로 탄생하는 일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저 받았을 뿐이다. 새 생령이 주어지는 구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생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령을 불어넣으시면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믿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2)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9 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다. 노력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자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우리 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13 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에 대해 갖는 신앙적 우월감이야말로 오히려 자신의 신앙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하겠다.

3)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10 절)?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땅을 다스리는 존재, 즉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조되었다(창 1:26-28).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이란, 단순히 도덕적 선행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맡은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의미한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한다.

속회공과

나눔 2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정한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갈 6:14).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랑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나눔 3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_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에 늘 감사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 _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자료제공: 매일성경)